

생명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이덕재 목사

· 김포지방회 중경회장
· 서암순복음교회 담임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눅 4:18, 롬 6:22

지난 주일은 우리나라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로 1910년 9월 10일 고종황제가 일제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압박과 설움으로 고통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35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과 감격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부모 형제, 친구, 행복, 희망, 학교, 교회, 병원, 통장에 들어있는 모아 놓은 돈, 집문제, 땅문제 모두 사라지고 의미가 없다.

이런데 미군이 철수한지 3개월 만에 탈레반 무장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

여 수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 오죽하면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비행기에 타지도 못하고 매달려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되새겨봐야 한다. 나라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모두가 함께 망하는 것이다. 미국이 3000조원이나 쏟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위해 20년간 도와주었는데도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고 오늘날의 비극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자업자득이다.

예국에족 성실, 정직, 올바른 목적을 향한 배움과 노력, 피와 땀 등등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일상이다. 본래는 이런 것을 행했다고 상 받고 칭찬 받을 상황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죽지 않으려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과 3일 전 탈레반 무장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역사적 교훈과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76년 전의 대한민국의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눈물겨웠던 것인지 실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다. 해방 후에도 김일성의 속임수를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분열자가 국민의 85%를 넘어 갈도 모르고 무조건 싹밭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말만하면 속아 넘어가는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워주고 분열을 15년 만에 퇴치하며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과정은 보통 눈물겨운 것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눈물겨운 과정은 1963년 당시 세계 120개국 가운데 GNP 120번째가 인도가 52달러였고 119번째 남한 72달러 118번째 북한 86달러였다. 말하자면 북한보다도 못한 극심한 가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룬 것 역시 눈물겨운 과정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역사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럴듯하게 거짓 선동하는 방송과 지지들과 패널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는 물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합숙임을 하고 있는 민주화가 무엇인지 분간 못하고, 토지

공개념, 동일임금, 동일노동, 운운하는 무지한 사람들, 왜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 아직도 분간 못하는 정치가나 국민이 있다면 언젠가는 비행기에 매달려 떨어져 죽는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 떠나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로를 격려하며 알리고 역사를 밝히고 모든 거짓과 오류를 척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를 잃는 비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포악한 무장군인으로서의 독립은 기반 놔두어도 잘 된다. 그러나 자유 독립은 쉽게 되지 않는다. 전쟁 기념관에 가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는데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를 지키려는 수많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희생이 있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를 찾으려고 하고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싸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국민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화

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광복을 얻은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생은 영혼의 주권을 잃고 미귀의 권세에 이끌려 미귀에게 속아서 사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찾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알게 한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며 내 영혼의 주권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다.

76년 전 광복절은 우리 선조들이 너무 좋아서 3개월 이상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포로된 자와 노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원받은 감격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여 자신과 가족을 비롯해 교회와 모든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쓰면 우리의 앞날은 큰 행복으로 가득 할 것이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홍범도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정부가 8.15를 맞아 순국한 지 76년이 지난 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운구해 오면서 최고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훈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강점기 독립군으로 1919년부터 시작하여 1920년까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면서 일본군과 싸웠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그가 참여한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중상 200여명의 전과를 올렸으며, 김좌진 장군과 함께 한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군 1,200여명을 살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저술에서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00여명,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400-500명을 살상했지만 우리 독립군도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보면 '대승'이나 '대첩'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도 홍범도 장군이 참여한 전투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과장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일제에 의한 침략과 지배 하에서 이런 무장 독립 활동을 했다는 것은 독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공로가 있다고 하여, 홍범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 토벌대에 밀려서 소련 영토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주와 간도 일대의 우리 동포들은 일본군에게 보복을 당하여 철저히 파괴되는 경신참변을 당하였다.

이후 한인 사회당 대표였던 이동휘에 의하여 독립군은 소련의 자유시(스보보드니시)에 약 4,500명의 독립군이 모여들었다가 그 곳에서 참변을 당하고 독립군이 완전히 와해되었다.

이곳에 모인 독립군은 민족주의 성향, 공산주의 성향, 무정부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소련의 적군(赤軍-공산군)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민족주의 성향(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의군부사관들)의 독립군들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921년 6월 28일 새벽, 적군(소련군) 제 29연대 기병대와 장갑차를 앞세운 기갑부대에 의하여,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이 포위된 상태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고 궤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후 만주 일대에는 독립군의 씨가 마르게 된다. 이들 독립군을 공격하는데 홍범도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후에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김홍일의 증언에 의하면, 이 때 희생된 독립군은 700-800명이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부상자가 수백명, 그리고 발목 노동장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조국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독립투사들이 일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편에 선 동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어떻게 독립을 위해 뜻을 같이한 독립군에게 사상이 다르다고 이처럼 무차별 학살을 할 수 있는가? 홍범도의 이런 흑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침담하고 용서받지 못할 민족사적 범죄를 눈감아 버리려는 것인가?

그리고 소련은 홍범도를 비롯한 2,000여명의 독립군을 고려혁명군 여단으로 재편하고, 1921년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명령한다. 그곳에서 소련은 독립군 전원을 적군(赤軍-소련군) 산하에 편입시킨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일까? 1922년 홍범도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의 공산지도자 레닌과 트로츠키를 만났으며, 레닌은 공산당 혁명 정권에 협조한 감사의 표시로 홍범도에게 금화 100루블, 군복 한 벌, 홍범도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로 주었다.

1937년에는 홍범도의 용도가 다 된 것으로 판단해서일까? 스탈린의 명령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로 추방되고, 그의 생애 말년에는 극장의 수위를 하다가 1943년 그 곳에서 운명한다.

결과적으로 홍범도는 일제 초기에 독립운동을 한 것도 맞지만, 끝내 공산주의 편

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상한 장본인이며, 다시 공산주의에 의하여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얼마나 공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도 정부가 최고 건국훈장을 뒤늦게 수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홍범도 장군을 영웅시하고, 국민적 추모를 하고 있다고 본다. '망'보다 '망'가 훨씬 큰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역사왜곡이 된다.

독립군 흑역사의 주인공이며, 기해지인 홍범도 장군의 업적만을 부각시켜 대한민국의 건국에 큰 공이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 지금, 편향되고 왜곡된 영웅 만들기 가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 정부는 어찌 공산주의자들만 특별 대접하는 것저런 보이는가? 간첩 신영복 6·25 남침의 주역 김원봉, 그리고 동족 독립군을 궤멸시킨 홍범도 등 모두 공산주의자들이 아닌가?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역사적 진실은 다수의 결이나, 한때 일시 권력자의 주장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 절대 독재자 진시흥의 분서경유(焚書坑儒)로도 역사적 진실은 영원히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동정

한남대, 어린이 교통안전 동침



한남대 이광섭 총장이 지난 8월 18일(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빈발하면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기후위기 현안에 대해 공유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박정아와 월드비전 국제구호·취약지역사업팀 서희종 대리, 월드비전 기후대응사업 전문가인 토니 리나우도 고문의 원격 인터뷰를 통해 개발협력 현장의 기후위기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직선, 19회 구국기도회 개최



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직선·대표회장 진승호·장로)와 서울시침기독교연합교회(회장 조용성 권사)는 지난 8월 14일(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퇴계로 남대문교회(순은탁 목사)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제19회 공의와 사랑실현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열린 이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협성대, 장애인 예술학과 신설



국내 대학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고등교육 과정이 기독교 사학인 협성대(총장 박명래)에 마련된다. 협성대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를 개설하며 다음 달부터 음악 22명, 미술 22명, 스포츠 21명 등 총 65명을 수시전형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